

現代패션에 應用된 후프(Hoop)에 關한 研究

鄭景禧* · 裴水晶

全南大學校大學院 博士課程* · 全南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全南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研究員

A Study on the Hoop Applied on Contemporary Fashion

Jeong, Kyung Hee* and Bae, Soo Je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shion design applying to the hoop, which have become various since 1980. To do this,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e origin and the changes of the hoop historically, then classified its types, and finally analyze the collections from 1980 to 2003.

The hoop was appeared on the late 15th century. Then in the mid 16th century, bell-shaped farthingale was prevailed, followed by drum-shaped wheel farthingale and hausse-cul in England and France. In the 17th century, slim silhouette was popular, so that the hoop declined gradually. In the 18th century, panier and panier double were introduced which is to make side-expanded skirt silhouette. In the 19th century, crinoline and bustle were created.

The hoops applied to modern collections are used various materials, techniques, and forms. It is a main item of historicism which appeared in the trend of post-modernism and the phenomenon of applying underwear to an outer garment like corset. The hoop is adapted into three ways: only with the frame of hoop, wearing a skirt with some parts of the frame exposed on purpose, and wearing a skirt on the frame, thus not showing the frame.

Thus, it is thought that wearing a hoop as a frame is used an element of recreation of past fashion, at the same time it was affected by historicism which is a branch of post-modernism. Applying the hoop as an outer garment may be affected by eroticism which changed underwear into an outer wear in post-modernism and deconstructivism.

Key words: Hoop(후프), Historicism(역사주의), Outwearization of Underwear(속옷의 겉옷화)

I. 서론

현대 의복의 형태는 고대로부터의 긴 시간속에서 각 시대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발전되어왔다. 이와 같은 의복의 발달로 인해 겉옷은 수많은 형태 변화를 거쳐왔으며, 겉옷의 형태 변화에 따라 속옷 또한 겉옷의 형태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

되어왔다. 또한 속옷은 겉옷의 변천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르네상스시대에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사고가 변화하면서 복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신체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인체의 실루엣을 과장·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겉옷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인체를 크게 보일 수 있는 속옷인 후프(hoop)가 고안되었다.

스커트의 부풀림을 위해 착용되었던 후프가 현대패션에서 특히, 1980년대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이후, 패션의 흐름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식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복식의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방법의 대표적인 예인 속옷이 겉옷으로 대체 되는 경향은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주의적 성향과 속옷의 겉옷화에 따른 영향으로 과거 속옷으로만 입혔던 후프가 현대패션에서는 겉옷의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겉옷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후프의 응용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후프에 관한 연구¹⁾는 주로 속옷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 혹은 후프의 시대적 고찰, 그리고 20세기 전반까지의 후프의 형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1980년대 이후의 후프의 형태, 또는 후프의 겉옷화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속옷으로 국한되었던 후프의 형태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더욱 다양해진 현대패션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후프의 역사적·미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오늘날 복식 디자인에 창조적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로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후프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해 후프의 형태를 고찰하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으로 영역이 확장된 후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이후의 Collections, Gap, Mode et Mode 등의 패션잡지 및 Radical Fashion, Young Belgian Fashion Design, Extreme Beauty, Fashion 등의 국외서의 그림자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II. 후프의 역사적 고찰

1. 후프의 기원

후프는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철사나 고래뼈 등을

세공하여 만든 테의 총칭으로²⁾ 시대에 따라 그 명칭과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고대 B.C. 1600년경 크리트(Crete)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1>의 뱀의 여신상이 입고 있는 종모양의 티어드 스커트 형태를 볼 때 풀을 먹인 린넨이나 모직을 사용하였거나, 받침대가 되는 후프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 또한 14세기 중엽 멋쟁이 여성들이 착용한 버슬 형태의 고안물에 관한 기록⁴⁾은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없는 관계로 15세기 후반, 스페인 귀족들이 그들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베르뒤고(verdugo)라는 명칭의 고안물이 후프의 시초이며, 프랑스에서는 베르뒤가댕(vertugadine)이라는 명칭으로, 영국에서는 파딩게일(farthingale)로 정착되었다. 베르뒤가댕은 스페인어 verdugos(잘 휘는 녹색의 어린 나무)에서 유래된 말이며 이는 아마도 초기의 후프제작에 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⁵⁾되고 있으며, 1470년 카스티(Castile)왕국의 궁정에서 병약한 엔리크 V세(Enrique V)와 결혼한 포르투갈의 요안나(Juana) 여왕이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커트를 지지할 수 있는 후프 형태의 버팀대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⁶⁾. 또한 「Banquet of Herod」(헤롯의 향연)이라는 중세 스페인 회화<그림 2>에 나타난 복식⁷⁾을 통해서도 당시 후프의 유행을 알 수 있다.



<그림 1> Snake goddess of Crete, B.C. 1600 (Costume & Fashion, p.33)



<그림 2> Banquet of Herod, 1470 (20,000 Years of Fashion, p.216)

2 후프의 변천과정 및 유형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탄생하여, 16세기에 보편화된 후프는 스커트 실루엣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16세기에는 여성의 자연적인 인체선을 강조하는 대신에 스커트를 뽀뽀하게 하기 위해 버팀대인 파딩게일과 코르셋을 사용하여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확대시킴으로써 인체의 선을 인공적으로 확대·축소시키는 과장미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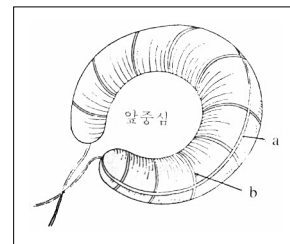
16세기에 유행한 후프의 유형 중 스페인식 베르튀가멩은 철사, 등나무, 고래수염 등으로 둥근테(hoop)를 린넨이나 면으로 감아 풀먹인 린넨 속치마에 꿰매어 붙인 형태로서, 직경이 작은 테를 위에, 큰 테는 밑에 두어 거꾸로 한 깔대기 모양, 즉 <그림 3>과 같은 종형을 이루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엉덩이 부분만을 과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오쓰 퀴(hausse-cul)⁸⁾ <그림 4>라는 새로운 형태의 버팀대가 나타났다. 이를 롤 파딩게일(roll-farthingale) 혹은 범롤(bum-roll), 범패드(bumpad)라고도 불렀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모직, 마, 견 등의 직물을 통형으로 꿰매고 나서 그 안을 말털, 부스러기 양모, 모직물이나 아마포의 부스러기로 채워 넣어 팽팽하게 하였

으며, 동작이나 취급이 편리해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어 승마용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스페인의 베르튀가멩을 파딩게일이라 불렀는데 스페인 아라곤의 왕 페르디난드(Ferdinand, 1452-1516)의 딸인 캐서린(Catherine, 1485-1536)이 영국왕 헨리 8세(Henry VIII세, 1491-1547)와의 결혼식(1509년)때 스페인의 베르튀가멩을 착용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⁹⁾고 한다.

파딩게일의 초기 형태는 허리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점차 직경이 증가되는 종형이었으나,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의복의 실루엣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 <그림 5>와 같은 휠 파딩게일(wheel-farthingale¹⁰⁾)이라고 하는 대형의 버팀대가 창안되었



<그림 4> Hausse cul. a · b : part put in support of wire (서양복식사, p.181)



<그림 3> The Infanta Isabella Clara Eugenia, 1584 (20,000 years of fashion, p.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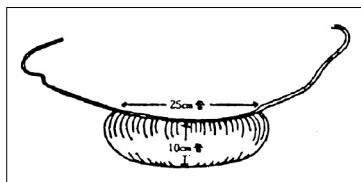
<그림 5> Queen Elizabeth I, 1593 (20,000 years of fashion, p.237)

다. 구성법은 풀먹인 마포의 바탕 천에 고래수염, 철사 등의 가는 줄기를 이용해 둥근테를 만든 후 수평으로 여러 단을 달아 붙인 것으로서, 둥근 테의 직경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같아 이로 인해 의복의 실루엣을 더욱 위풍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여 주로 궁정복과 의례복으로 애용되었다.

화려함과 과장이 극에 달했던 16세기의 복식과는 달리 바로크 양식이 지배적이었던 17세기에는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바로크적 기풍을 바탕으로 복식이 변화되었다. 여자복식은 과장이 줄어들고, 장식은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럽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초반에는 비활동적이고 귀족적인 스페인식 원추형의 후프와 드림형 파딩게일이 여전히 착용되어 16세기 복식스타일이 그대로 유행되었다. 특히 베르튀가뎡을 처음 출현 시켰던 스페인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였다. 1645년경에는 초기 종형의 형태를 대신하여 앞과 뒤가 납작하고 옆으로 엄청나게 확대된 형태가 형성되었다. 이는 18세기 유럽의 파니에의 선조로써, 스페인어로 가드인판테(guardinfante)라고 불렸다.

하지만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바로크 양식의 영향으로 인해, 1625년경 후프의 인기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근 백년 이래 처음으로 옷의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후프의 착용이 점차 사라지면서 인위적인 틀에 의해서가 아닌 대단히 정교하고 우아한 페티코트의 착용이 증가되었고, 17세기 중엽부터는 다시 여러 겹의 페티코트를 받쳐입어서 풍만하면서도 길기도 길어지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자 버슬 형태가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1680년대 전에는 힙을 강조하기 위해 입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는데, 1680년이 되어 힙의 뒷부분만을 부풀리기 위한 도구로써 「cul de paris」라는 힙



〈그림 6〉 Hip pad, 17C (西洋服飾發達史,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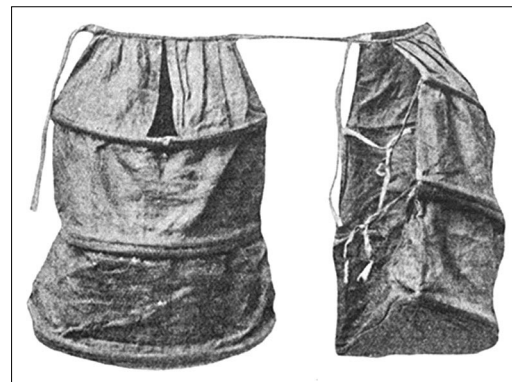
에 붙이는 허리받침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림 6〉과 같은 베개모양의 힙 패드(hip pad)로 오스퀴와 마찬가지로 자루에 면, 마 부스르기 등을 채워 넣고 부풀린 형태이다.

18세기에는 로코코 시대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복식스타일의 유행으로 인해 스커트 부분을 강조하여 확대시키기 위해 후프가 다시 등장하였다. 영국에서는 이 버팀대를 후프 또는 후프 페티코트¹⁾(hoop(ed)petticoat), 임프루버²⁾(improver)로 불렀고, 1718년경 프랑스에 소개되었을 때, 새장의 형태와 비슷하다해서 프랑스어로 새장을 의미하는 파니에로 불리었으며 그 후 파니에가 후프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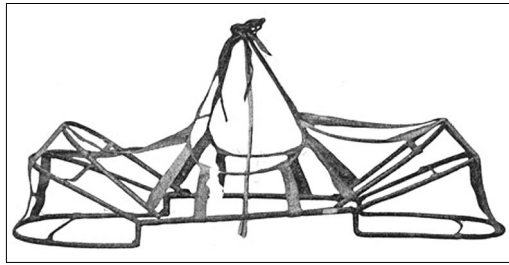
파니에는 여성 스커트의 속옷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로코코 의상을 특징짓는 것으로, 1720년대의 종형이 꾸준히 팽창되어 차차 원통형으로, 1740년경에는 앞뒤가 납작하고 좌우 양옆이 넓어진 타원형이 되었다⁴⁾.

1750년경에는 앞뒤의 폭이 급격히 감소되고 양옆으로 확장된 대형의 타원형이 되었으며, 활동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파니에 두블르(panier double)가 고안되었다. 파니에 두블르는 양옆만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파니에를 붙인 형태로 〈그림 7〉과 같이 중심의 윗 부분에 끈이 달려 있어 착용시 허리에서 맴 수 있게 되어있으며 영국에서는 이를 사이드 후프(side hoop)라고 하였다.

하지만 옆으로 확대되어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된



〈그림 7〉 Blue linen panier double, 174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89)



〈그림 8〉 Hooped petticoat support in bent wood, 175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90)

파니에 두블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파니에가 고안되었다. 이 파니에는 〈그림 8〉과 같이 타원형의 철사틀을 형검테이프로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상하로 신축성 있게 접힐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1780년경 심각한 혁명의 기운은 여성들을 파니에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복고풍의 등장으로 자연스러운 의상이 유행하여 후프의 착용이 줄어들다가 19세기에 크리놀린이라는 명칭으로 재등장하였다.

크리놀린은 1840년경부터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850년경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크리놀린은 유제니 황후(Empress Eugéie, 1826-1920)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임신한 몸매를 감추기 위해 스커트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라틴어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의 크리니스(crinis)에서 유래되었다⁵⁾.

처음에는 크리놀린 천으로 만든 언더스커트를 여러 개 겹쳐 착용함으로써 스커트의 부풀림 효과를 내었으나, 스커트를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가는 철사의 둥근테를 만들어 스커트에 부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그 후 철사로만 된 새장과 같은 틀이 고안되어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크리놀린의 의미는 페티코트뿐만 아니라 틀을 포함한 전체적인 스커트 버팀대 모두를 가리키게 되었다.

1845년경부터 천과 철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850년대 초기에는 밑단이 많이 퍼지지 않는 종모양이었지만, 1850년대 후반부터는 새장처럼 아래가 둥그렇게 최대로 퍼진 형태의 매우 큰 것이 유행하였다. 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철제로만 공들여 조립한 것이 1856년경부터는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계속 사용되

었으며, 1860년대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복식사상 스커트 단의 넓이가 최대로 커졌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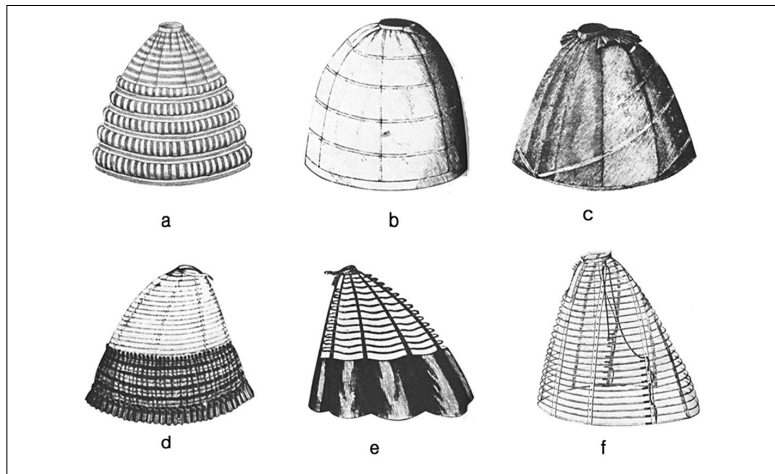
크리놀린 시대의 양면의 부풀림은 점차 뒤로 몰려 스커트의 드레이프가 뒤로 모이면서 힙을 강조한 버슬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었다. 버슬 스타일은 버슬(tournure:佛)이라는 스커트 버팀대(그림 10)를 엉덩이 뒤에다 대서 엉덩이를 돌출되게 함으로써 곡선진 실루엣을 만들어 준 것으로 17, 18세기 말에 유행하였던 버슬 스타일이 재현되었다.

버슬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독립된 용구가 사용되기 전에는 고래수염·철사·크리놀린 직포 등을 사용하여 엉덩이부터 단에 걸쳐 부풀린 일종의 페티코트를 입었으며,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엉덩이 부분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버팀대가 나타났다. 그 구조는 다양하여 말털이나 새털을 채워 넣은 쿠션형식의 것, 철사로 삼태기 모양의 틀을 만든 것, 천으로 주름잡은 것 등이 있었다⁶⁾.

버슬 실루엣의 변화를 살펴보면 버슬 스타일 등장 초기인 1860년대에는 크리놀린 스커트의 폭이 다소 줄었으며, 1870년대 중반에는 스커트의 단이나 트레인의 길이가 뒤로 길게 장식되었다. 1877년에서 1880년에 걸쳐 버슬이 잠시 사라졌다가 1880년대부터 스커트 단의 강조가 엉덩이쪽으로 점차 옮겨지게 되어 1885년에는 버슬이 절정기를 맞이하여 엉덩이 부분이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돌출되었고(그림 11), 리본장식이나 주름으로 강조되었다. 직각으로 돌출되었던 큰 버슬은 1888년이 되면서 그 크기가 갑자기 약화되었고⁷⁾, 근대 생활의 현저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1890년경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III. 현대패션에 응용된 후프

근대까지 유행했던 후프는 20세기 전반에 호블 스커트, 롱 스커트 등의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거의 착용되지 않았으며,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이 발표한 New Look의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페티코트가 착용되었을 뿐 대부분 스커트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슬립(Slip)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그림 9> Various Crinoline.

a: Horsehair crinoline, 1856.

b: Cotton crinoline, 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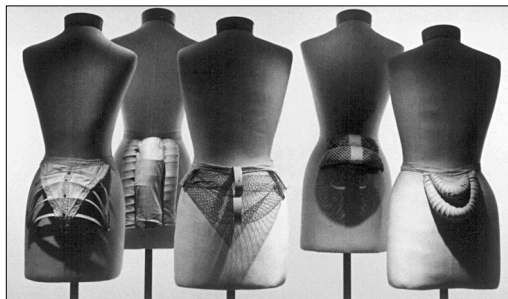
c: Cotton crinoline, 1860.

d: Crinoline with horsehair flounce, 1862.

e: Cage crinoline, 1864.

f: Cage crinoline with patent draw-string, 1866.

(Corsets & Crinolines, p.114)



<그림 10> American five bustles, 1880
(Extreme Beauty, p.130)

착용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방대한 지적·문화적 움직임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의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현대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클래식함과 모더니즘, 이방가르드와 노스텔지어의 융합으로, 과거의 것을 이용하여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고자 하는 '역사주의'를 비롯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보이지



<그림 11> American Evening dress, 1884-6
(Extreme Beauty, p.132)

않을 정도로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고, 새로운 장르의 시도나 실험적인 시도,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후프는 현대패션에 등장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역사적인 복식, 그 가운데 특히 유럽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로코코 시대 등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복식의 이미지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역사주의와 전위적이며 에로틱함을 강조하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의 주요 아이템으로 코르셋과 더불어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 패션에서 후프는 과거 복식의 특징과 현대 복식의 특징을 접목시켜 재해석한 새로운 패션의 요소로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다. 역사적 고찰부에서 살펴본 후프가 당시대의 과장된 복식을 위한 속옷의 역할에 주안을 두고 착용된 것과는 달리 현대 패션에 응용된 후프의 형태는 속옷의 역할뿐 아니라 겹옷 즉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

1. 현대패션에서 후프의 응용배경

1) 역사주의 성향

문명의 이기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보다 깊은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를 동경하고 있다⁹⁾. 과거에 대한 향수는 현대패션의 디자인에 과거 복식으로부터 현대적 감각의 접근을 행하며, 현대패션에 고갈되어 있는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과거복식을 활용한 역사주의의 출현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패션의 복고적 디자인은 과거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과거에 출현했던 복식이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패션에서 연출되는 역사주의는 주로 과거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을 기법, 현대적 재질의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의 도입, 남·녀 성, 과거와 현재의 자유로운 절충과 결합의 조합 속에서 새로운 패션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속옷이었던 후프는 르네상스 이후의 과거 복식의 형태를 재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역사주의의 성향 아래 여러 형태의 후프, 즉 종형의

후프를 착용하여 특정 시대의 실루엣을 선보이거나, 드럼형 파딩게일의 재해석, 타원형 파니에, 파니에 두블르 등 후프의 골격이 축소되어 겹옷에 가려진 채 착용된 형태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대의 특징을 적절히 융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대복식에 있어서 후프의 응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 나타나고 있는 역사주의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2) 속옷의 겹옷화 현상

과거에는 겹옷 안에 입혀 겹옷의 실루엣을 살리고 체형 보정 및 위생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속옷의 개념이 현대패션에 이르러 그 역할과 개념이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된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속옷의 디자인이나 소재, 장식, 기법, 이미지 등의 요소가 겹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때 고의로 속옷을 겹에 보이도록 한 최초의 예는 1778년경부터 유행하던 슈미즈 스타일이다. 슈미즈는 마리 앙투와네트가 즐겨 착용하던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à la Reine)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속옷의 경박한 모습은 유희와 유혹의 표본으로 여겨졌으나, 이미 이때부터 속옷의 겹옷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들어 폴 푸아레가 코르셋의 폐기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속옷은 의복에 있어서 모호한 위치로 퇴화되었다.

현대패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1973년 샤타 토마스(Chantal Thomas)의 캐미솔 룩을 시초로 브래지어, 슬립, 가터벨트 등의 란제리를 비롯하여 코르셋, 페티코트 등 여러 속옷이 겹옷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속옷의 겹옷화는 1990년대에 정착되었다. 속옷의 겹옷화의 대표적인 예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보정용 속옷인 코르셋을 모티브로 팝가수 마돈나를 위해 디자인한 무대의상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으로 보정용 속옷이었던 후프 또한 코르셋과 함께 매치되어 선보여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겹옷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노출

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²⁰⁾ 고도로 발달한 사회의 풍요와 세기말의 독특한 정서를 퇴폐적 탐미주의 경향과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프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 속옷으로 은폐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부분을 공적인 공간으로 노출되어 드러내고 있으며, 후프의 구성에 사용되었던 소재 또한 린넨이나 면에서 속이 비치는 쉬폰이나 시스루 소재 등으로 디자인되어 겉옷화됨으로써 인체의 곡선을 드러냄과 동시에 은밀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고정관념이 깨진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에로티시즘적인 성향 아래 응용되고 있다.

또한 장 폴 고티에,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에 의해 후프의 골격을 그대로 노출시켜 겉옷으로 착용하는 경우, 겉옷과 함께 착용되어 후프의 골격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형태로 응용되어 해체, 분해, 반(反)구조 등의 기법으로 컬렉션에서 제시되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도는 오히려 의상의 통일성을 해치면서 완성된 옷으로부터 후퇴하는 미완성의 해체주의적 경향을 선보이고 있다²¹⁾.

2. 현대패션에 응용된 후프

1980년대 이후 컬렉션에 등장한 의상의 실루엣의 형태를 분석하여 과거 보정용 속옷의 역할을 담당했던 후프의 영역을 겉옷의 실루엣을 형성하는 속옷, 파니에, 버슬 등의 형태가 변형되어 착용된 겉옷, 겉옷의 형태를 보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도록 디자인된 속옷과 겉옷의 절충형의 형태로 확장하였다. 또한 과거 복식사에 나타난 후프의 형태와 비교하여 종형, 드럼형, 파니에형, 버슬형으로 형태를 표현하였다.

1) 속옷으로 응용

현대패션에서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다양한 형태의 속옷으로 응용되고 있다. 과거 후프와 마찬가지로 현대패션에서도 속옷의 역할을

하고 있는 후프는 겉옷의 실루엣을 위한 버팀대 역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복고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과거복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대패션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다.

역사주의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발표되고 있는 의상의 실루엣을 분석해본 결과, 속옷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과거 파딩게일, 파니에 등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형, 파니에형, 드럼형 등의 형태로 응용되고 있지만, 과거 복식사에 비해 좀더 축소되고 심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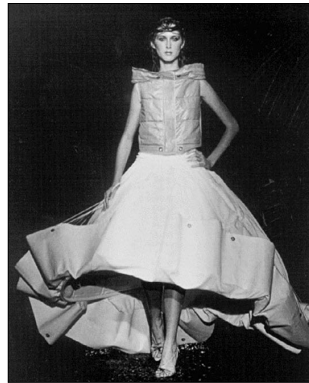
속옷으로 착용되고 있는 형태 중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종형은 기존의 오프 쿠티르 의상과 웨딩드레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식 파딩게일의 응용뿐만 아니라 종형의 크리놀린, 피라미드 형태의 크리놀린 등의 후프를 응용하여 스커트 부분의 화려한 장식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디자인되고 있다. 특히 요지 야마모토는 '98/99 F/W 컬렉션(그림 12)의 대미를 크리놀린 가운데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1866년을 절정으로 극대화된 크리놀린의 변형으로 그 당시보다 더욱 거대해진 크리놀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발하면서도 독특한 고딕풍의 아이템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올리비에 데스켄스(Olivier Theyskens) 또한 '01 S/S 컬렉션에서 요트를 연상시키는 스커트는 버팀대로만 이루어진 후프(그림 13)를 착용하여 스커트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으며, 거대해진 종형의 실루엣을 보여준다. 대부분 과거 복식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 브로케이드같은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코르셋이나 스토마커와 함께 매치하였고, 단순히 후프를 변형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디자인에서는 소재의 국한없이 얇은 시스루 소재로 주름을 잡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드레스나 가죽 소재의 버팀대로도 응용되고 있다. (그림 14)의 장 루이 쉐레(J. Louis Scherrer)의 의상은 (그림 1)의 크리트 시대의 뱀의 여신상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스커트의 형태를 보아 안에 종형의 스페인식 파딩게일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03 S/S 컬렉션에서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한 롤 파딩게일과 드



〈그림 12〉 Yohji Yamamoto
「Radical Fashion」,
'98/99 F/W, p.21



〈그림 13〉 Olivier Theyskens,
「Young Belgian Fashion
Design」, '01 S/S, p.109



〈그림 14〉 Scherrer, Gap,
'02/03 F/W,
p.93

럼형 파딩게일을 활용한 의상(그림 15)을 선보였다. 롤 파딩게일은 스커트 안에서 스커트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한 속옷으로 착용되어 가벼워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드림형을 형성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파니에의 형태는 대부분 과거 풍자와 비난에 일조한 대형의 타원형 파니에서부터 최소한으로 간소화한 파니에 형태로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찬 디오르는 18세기의 파니에를 많이 응용하여 과거의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는데, '95/96 F/W 컬렉션에서는 1740년경의 앞뒤가 납작한 타원형의 파니에를 활용하였으며 '98 S/S 컬렉션에서 앞뒤의 폭이 급격히 감소하고 양옆으로 확장된 1750년경 대형의 파니에를 응용하여 18세기에 입혀진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그대로 재현하였고, 〈그림 16〉은 18세기의 복식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으로 응용한 의상으로 18세기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비롯하여 거대한 머리장식과 18세기 특징인 앙가장 소매, 프릴장식까지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98/99 F/W 컬렉션에서 과거 여성을 속박한 파니에(그림 17)를 미니 드레스와 함께 착용함으로써 파니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8〉은 모스키노(Moschino)의 의상으로 파니에를 착용한 로브 아 라 프랑세즈에 자유분방한 느낌의 가죽자켓과 매치하여 시간차를 극복



〈그림 15〉 Junya Watanabe,
'03 S/S, www.
firstview.com



〈그림 16〉 Christian Dior,
Mode et Mode,
'00/01 F/W, p.71



〈그림 17〉 Vivienne Westwood
Red label, Collections,
'98/99 F/W, p.278



〈그림 18〉 Moschino, Mode
et Mode, '87/88
F/W, p.104

한 크로스오버(cross-over)적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속옷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크리스찬 디오르, 크리스찬 라크로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과 장 루이 웨레, 올리비에 데스칸스 등의 디자이너들의 2000년도 이후 컬렉션에서도 꾸준히 응용되고 있다.

2) 속옷과 겉옷의 절충형으로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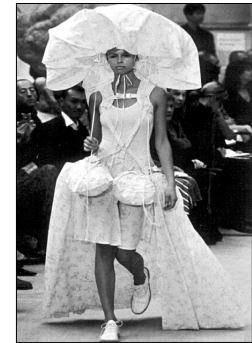
현대패션에 응용된 후프는 대부분 속옷의 형태로 응용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겉옷의 형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절충형태로 속옷과 겉옷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후프의 형태를 최근 컬렉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속옷과 겉옷의 절충형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겉옷과 속옷을 의도적으로 동시에 드러내면서 겉옷의 역할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성이 파괴된 의상과 후프가 동시에 겉옷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컬렉션에 등장한 미완성을 향한 해체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의상들의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의상의 통일성을 해치면서 완성된 옷으로부터 후퇴하는 미완성, 즉 혼돈과 파괴의 미학을 지닌 해체주의적인 성향을 후프의 응용 형태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응용되고 있는 형태는 종형과 버슬형이 대부분이며, 파니에형과 드럼형의 응용형태는 미비하다. 종형으로 응용된 대부분의 후프는 1860년대에 유행한 피라미드 형태의 크리놀린을 응용한 형태로 후프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스커트를 지탱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겉옷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후프를 구성하는 뼈대 또한 가는 나무,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구성되어 종형의 실루엣을 띄고 있으며, 그 위에 매우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으므로 후프의 골격을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다. '03 S/S 컬렉션에서 뼈대로만 만들어진 크리놀린을 변형하여 이질적인 실루엣의 스커트를 동시에 선보인 <그림 19>는 해체주의 경향을 보이며, 본래의 종형에서 많이 변형된 형태로 양옆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그림 20>은 준야 와타나베의 의상으로 그는 16세



<그림 19> Tim Van Steenberghe, Gap, '03 S/S, p.122



<그림 20> Junya Watanabe, Gap, '03 S/S, p.31

기의 룰 파당게일을 응용하여 속옷의 기능을 하면서 겉옷으로 드러나게 착용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그 형태가 16세기 후프와 매우 유사했다. 또한 절충형의 후프는 다른 응용형태와 달리 비교적 골격 그대로 드러난 형태가 대부분으로 '95/96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요지 야마모토의 파니에<그림 21>는 1750년대에 등장한 분철이 되어있어 접을 수 있는 파니에 두블르의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서, 상의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의도적으로 파니에의 구조를 겉옷으로 드러내고 있다.

버슬형은 시스루나 툴 등의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겉옷의 끝자락에서 실루엣을 형성하면서 의도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18세기 남자복식인 아비 아라 프랑세즈를 응용하여 버슬형태와 결합한 빅토 앤 룰프의 의상<그림 22>은 과거 복식의 현대적인 해석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린 크로스오버적인 의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보다 먼저 발표한 요지 야마모토는 '86/87 F/W 컬렉션<그림 23>에서 1870년대 버슬을 연상케하는 화려한 붉은색 툴로 꾸며진 블랙드레스를 선보였는데 불규칙하게 잡아진 주름이 수트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바닥에 길게 끌리도록 디자인하였다.

속옷과 겉옷의 절충형 역할을 하고 있는 후프의 응용은 속옷이나 겉옷의 역할을 하는 후프의 비중에 비해 많이 응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컬렉션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옷과 겉옷의 절충형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발판으로 최근에 등장하



〈그림 21〉 Yohji Yamamoto,
「Extreme Beauty」,
'95/96 F/W, p.119



〈그림 22〉 Viktor & Rolf,
「Extreme Beauty」,
'94, p.134



〈그림 23〉 Yohji Yamamoto,
「Radical Fashion」,
'86/87 F/W, p.33

고 있으며, 특히 남·녀의 성, 과거와 현재 등을 절충한 크로스오버적인 성격으로 의복의 통일성에 근접하기보다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 중 파괴와 혼돈의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3) 겉옷으로 응용

과거 속옷으로 스커트의 실루엣을 형성했던 후프는 1990년대 본격화된 속옷의 겉옷화 현상으로 코르셋, 브래지어 등의 속옷과 더불어 겉옷으로 응용되고 있다. 특히 나무, 플라스틱, 패드 등의 소재로 시스루, 쉬폰 등의 의상에 골격을 삽입하는 형태로 등장하여 신체의 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중형, 버슬형 등 여러 형태에 응용되고 있다.

1973년에 캐미슬 룩으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가장 먼저 선보인 상탈 토마스는 '95년 컬렉션에서 속이 비치는 흰색의 뽀뽀한 소재의 드레스(그림 24)에 수평·수직으로 버팀살을 삽입하여 겉옷으로 표출된 검정색의 코르셋과 가터 벨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1850년대의 크리놀린의 변형된 형태를 연출하였다.

〈그림 25〉는 독특한 소재와 기법을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이 디자인한 지방시(Givenchy)의 의상으로 나무의 둥근테로만 만들어진 중형의 크리놀린이 스커트로 연출되고 있다. 그 밖에도 크리놀린의 변형된 스타일의 하나로써 스커트 햄라인에 둥근테를 삽입한 시스루 드레스, 중형의 후프를

하나의 겉옷으로 표현하거나 둥근테를 네크라인부터 스커트의 햄라인까지 차례대로 배열하여 중형의 형태로 나타내는 등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등장한 드럼형 후프는 16세기의 극도로 과장된 모습이 아닌 둥근테를 비치는 소재에 삽입하여 무릎길이의 축소된 형태로서 펠트, 오간디(organdy), 나일론(nylon) 등의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 요지 야마모토는 '02 S/S 컬렉션에서 힐 파딩 게일(그림 26)을 허리에서 묶는 부분부터 스커트 햄라인까지 거의 그대로 역사적 재현을 하고 있으며 둥근테의 삽입으로 드럼형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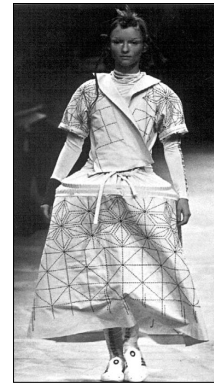
18세기의 파니에 두블르와 16세기 남성들의 트렁크 호즈에서 그 요소를 가져온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의 의상인 〈그림 27〉은 철제 골조나 고래수염 등으로 만든 파니에 두블르가 아닌 패드를 사용하여 티에르 뮈글러만의 독특한 페티쉬(pastiche), 즉 남녀의 성과 역사를 혼합하여 여성들의 바독판 무늬의 에이프런 드레스를 선보였다. 장 폴 고틀리는 '98 S/S 오트 꾸튀르 컬렉션에서 대부분을 파니에를 응용한 의상으로 선보였다. 그는 18세기 가운의 상의부분을 파니에 두블르와 접목(그림 28)시키거나, 포켓과 슬릿이 있는 파니에 두블르를 슈트와 함께 활용하여 현대적인 의상에 조화되는 소재와 형태를 재창조하였으며, 접이식 파니에 두블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겉옷으로 변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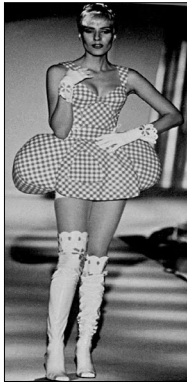
〈그림 24〉 Chantal Thomas, 「Fashion」, 1995, p.298



〈그림 25〉 Givenchy, 「Radical Fashion」, '98 S/S, p.97



〈그림 26〉 Yohji Yamamoto, Gap, '02 S/S, p.51



〈그림 27〉 Thierry Mugler, 「Extreme Beauty」 '91 S/S, p.111



〈그림 28〉 Gaultier Paris, Mode et Mode, '98 S/S, p.60



〈그림 29〉 Yohji Yamamoto, 「Radical Fashion」 '86/87 F/W, p.138

요지 야마모토는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주름을 잡아 엉덩이 부분에 별도로 버스를 부착한 의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대 패션에서 등장한 버스형은 이처럼 패드나 나무, 철제,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 직접 겉옷으로 부착하거나, 리플이나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버스모양 등을 부착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패션에서 겉옷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여성의 신비감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촉각과 시각을 자극시키는 디자인과 시대흐름에 따라 인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노출부위를 달리하여 재해석되고 있

다. 또한 노출의 스타일을 제공하며 겉옷으로 드러냄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패션에서의 후프의 응용방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IV. 결론

자신의 신체를 이상화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각 시대의 유행흐름에 따라 겉옷의 발달뿐만 아니라 속옷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르네상스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인간의 신체를 과장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후프는 그

〈표 1〉 현대패션에서의 후프의 응용방법

응용방법	형태	종형	드럼형	파니에형	버슬형
속옷으로 응용					19세기 버슬형의 후프는 속옷으로서의 응용이 거의 없음.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등 오프 꾸뛰르 의상의 버팀대로 응용.	16세기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의상에서 풀 파딩게일을 응용.	18세기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에서 타원형의 파니에를 응용.	
속옷과 겹옷의 절충형으로 응용					
		해체주의 경향을 보이는 의상에서 겹옷과 함께 후프의 골격을 일부 드러내도록 응용.	겹옷과 속옷 사이에 휠·풀 파딩게일을 부착한 형태로 응용	파니에 두블르의 여러 형태를 응용.(겹옷과 속옷 사이에 착용)	시스루, 쉬폰 등의 실루엣을 표현하면서 버슬 형태를 드러내도록 응용
겹옷으로 응용					
		시스루, 쉬폰 등의 의상에 골격을 직접 삽입하여 겹옷의 형태로 응용.	휠 파딩게일이 변형된 겹옷에 골격을 삽입한 형태로 응용.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겹옷과 후프를 연결하여 응용.	나무, 철제, 플라스틱, 천 등의 소재로 후프를 만들어 겹옷으로 응용.

후 여러 세기동안 여자 복식에서 형태와 명칭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5세기 후반 스페인에서 처음 나타났던 종형의 후프는 엄격하고 단정함으로 인체를 감추는 딱딱한 실루엣의 유행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그 후 16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져 드럼형의 휠 파딩게일과 오스

퀴로 변형되어 널리 애용되었다. 17세기 초기에는 후프를 착용한 복식이 유행하였으나, 1625년 이후 바로크 복식의 영향으로 슬림한 스타일의 복식이 유행하자 후프의 착용은 점차 쇠퇴하였다. 18세기에는 파니에와 파니에 두블르가 고안되어 유행하였는데 이는 옆을 크게 부풀린 스커트의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19세기 중

업에 이르러서는 종형의 크리놀린이 등장하였으며, 말기에는 버슬이 고안되어 유행하였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알아본 후프는 현대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역사주의와 속옷의 걸옷화 현상의 주요 아이템으로 코르셋과 더불어 다양한 소재와 기법 및 형태로 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패션에서 과거 복식의 특징과 현대 복식의 특징을 접목시켜 재해석한 새로운 패션의 요소로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는 후프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 컬렉션에서 후프는 코르셋과 함께 속옷, 속옷과 걸옷의 절충형, 걸옷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종형, 드럼형, 파니에형, 버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속옷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는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의 버팀대로 응용되고 있는 종형과 타원형의 파니에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과거 복식을 새롭게 재현하여 과거 복식의 역사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라크로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컬렉션에서 등장하고 있다.

해체주의 경향을 보이는 의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속옷과 걸옷의 절충형은 후프의 골격이 속옷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걸옷과 함께 걸로 드러나고 있다. 특정 형태보다는 여러 형태가 공존하여 응용되고 있으며, 속옷의 걸옷화 현상의 영향으로 최근에 이르러 컬렉션에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걸옷으로 응용되고 있는 후프의 형태는 종형과 버슬형이 비교적 많았으며, 종형의 경우 속이 비치는 시스루, 쉬폰 등의 의상에 골격을 직접 삽입하여 에로티시즘을 연출하고 있다. 버슬형은 19세기 버슬의 형태와는 달리 현대 컬렉션에서는 걸옷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극도로 과장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디자인에 적합한 크기로 연출되어 강조하고자 하는 실루엣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프는 새로운 기법과 다양한 소재의 결합으로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패션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표현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과거 복식을 재현하는 요소로써 사용됨과 동시에 여기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시켜 재해석한 새로운 패션의 요소로 사용되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참고문헌

- 1) 최영옥, underwear에 관한 연구-hoop와 petticoat를 중심으로, 안동대학「논문집」제 6집, 1984.
한은주, 파티нге일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2) 패션용어사전, 라사라 패션정보, 2002, p.237.
- 3) 이정옥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1, p.53.
- 4)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Faber, 1981, p.33.
- 5) Norah Waugh, Corsets and Crinolines, Routledge/Theatre Arts Books, 1981, p.22.
- 6)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1987, p.205.
- 7)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wentieth century, Harper & Row, 1965, p.259.
- 8) haussecul :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haussecul을 1580년에서 1620년 사이에 입었는데 bolster 라고도 했다.
- 9) Blanche Payne, 1965, p.291.
- 10) 외형이 마치 커다란 북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세 인들은 이것을 점차 drum형이라 불렀다.
- 11) hooped petticoat : 후프를 끼운 밀겹치기 스커트라는 의미.
- 12) improver : '형태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라는 의미.
- 13)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Books, New York, 1986, p.313.
- 14)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1981, p.88.

- 15) Doreen Yarwood, 1986, p.125.
 - 16) 이정옥, 1991, p.360.
 - 17) Doreen Yarwood, 1986, p.58.
 - 18) 나현신 · 전해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4), 2000, p.464.
 - 19) 앞글, p.464.
 - 20) 정 현, 인체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8.
 - 21) 변소영,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의상 디자인 연구:속옷의 겹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69.
-
- (2004년 4월 27일 접수, 2004년 5월 24일 채택)